

VI. 主要 政策 이슈 解說

○ 증권 관리위원회, 上場法人 財務管理規程 개정(2. 16)

-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현금·유가증권 차입시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 필요
- 대주주가 자사와 자본금의 10%를 초과하는 거액 거래시에도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

○ 건설교통부, 許可地域 農地 買入 완화(2. 16)

-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농지 매입시 적용하던 거주지 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

○ 외무부, 排他的經濟水域(EEZ) 종합 대책 발표(2. 20)

- 국제해양법 발효에 따라 우리 인접 수역에 대한 EEZ 선포 방침 천명
- 어업대책반 설치 및 해양 경비력 증강

○ 노동부, 適正 協約 賃金 引上率 제시(2. 22)

- 95년 7.1%보다 0.5%포인트 낮아진 6.6%(범위율 5.1 ~ 8.1%) 제시
- 단체협약상 임금 관련 항목은 임금협상때 일관 타결토록하고, 물가등과 연동해 임금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 방침

○ 건설교통부, 賃貸住宅法 개정안 시안 마련(2. 23)

- 有주택자에게도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을 임대 분양 받도록 권리 부여
- 민간건설업체가 임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 소형 아파트 의무 건설 비율 완화

○ 재정경제원, 株式市場 開放 擴大 및 海外證券投資 自由化 計劃 발표(2. 25)

- 4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 확대(현행 종목당 15% → 18%)
- 개인과 법인등 일반투자가들의 해외증권 투자 한도가 4월부터 전면 폐지

○ 재정경제원, 株式場外市場發展方案 마련,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(2. 28)

- 7월부터 장외시장 주식의 매매방식을 상장 주식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
- 장외 중개회사를 설립하고, 장외 주가지수를 개발 제공

○ 건설교통부, 住宅建設基準 전면 개편 방침(3. 5)

- 부대·복리 시설의 규모 및 공간배치에 대한 제한을 조정 완화
- 내부 구조에 대한 사소한 규제는 폐지

○ 통상산업부, 中小企業構造改善 및 經營安定支援方案 마련, 3월 시행(2. 3)

- 30대그룹소속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으로 주는 상업어음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제한
- 관련 기업 도산 등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시 긴급 경영 안정 지원

○ 전기교통부, 96年度 物流 改善 施行 計劃 확정 발표(2. 5)

- 정부는 올해부터 5년동안 250만개의 표준 팔렛을 보급
- 물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물류 표준마크제 도입

○ 정보통신부, 超高速網 288個 事業者 7월 선정(2. 8)

- 특정 지역에서 민간 기업의 일반통신사업과 케이블TV사업 참여 허용
- 초고속망 참여업체는 대주주 지분이 1/3 이하로 제한

○ 재정경제원, 5월부터 商業借款 導入 要件 완화(2. 9)

- 30대그룹 이외의 첨단 제품 생산 일반대기업도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
-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, 30대그룹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추후 허용

○ 재정경제원, 3월부터 貸出指導比率 폐지(2. 10)

-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의 30~70%를 의무적으로 제조업에 대출 → 정보통신, 유통, 관광, 서비스 등 우량 기업들도 필요한만큼 대출 가능

○ 전기교통부, 7월부터 主要 都市의 工場地帶 再開發 추진(2. 11)

- 소규모 노후 공장 밀집 지역을 도시형 공장 지대로 재정비
- 재개발지역내에는 住工 복합건물 가능하나, 低공해 · 도시형 업종에 한해 허용

○ 재정경제원, 上場法人의 株式을 取得하는 同一人 범위 확대(2. 12)

- 상장법인 주식의 5% 이상 소유할 경우 신고 대상 동일인 범위 확대(대기업 계열사 →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는 법인도 포함)

○ 중앙안전리적위원회, 建設 競爭力 · 不實防止 종합리적 마련(2. 13)

- 97년부터 은행, 보증회사 등이 건설공사의 이행을 담보하는 공사완성보증제 도입
- 대형공사는 한 회사가 위탁받아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